

□ 탐방/동두천 계란집하장

생산자의 대변인 역할로 합리적인 계란유통을 꾀한다.



정리/김동진 기자

채란농가에서 계란을 출하할 때마다 상인들이 중간마진을 노리고 끼어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계란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수록 중간마진이 높게 작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들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채란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중간상인들과의 거래를 배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각오로 '제값받기'라는 차원에

서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동두천지역에서는 계란유통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이원기 전 분회장과 현재의 구천석

분회장이 중심이 되어 9명의 운영위원을 구성, 지난 '89년부터 계란집하장 건립 사업의 추진을 모색하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며 제반여건상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상 사업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얼마만큼 높은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아 더욱 애로를 겪었다.

그러던중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의 뒷받침이 있게 되고 집하장 건립의 필요성이 점차 회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인식되어감에 따라 상인들과의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참여가 시작되면서 '90년에 40여명이 모여 1인당 많게는 5백만원에서 적게는 백만원을 출자하여 약 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도 1억원을 지원하여 결국 양주군 회천읍 봉향리에 약 840평(건평 258평)의 집



• 직접 계란을 선별하고 있는 양승훈 소장

하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동두천의 제3집하장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안성과 광주에 있는 집하장과 나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양승훈 소장을 비롯해 기사 1명, 그리고 8명의 인부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별기 2대(10,000~12,000/1대·시간당), 지게차 1대, 4.5톤 트럭 2대를 구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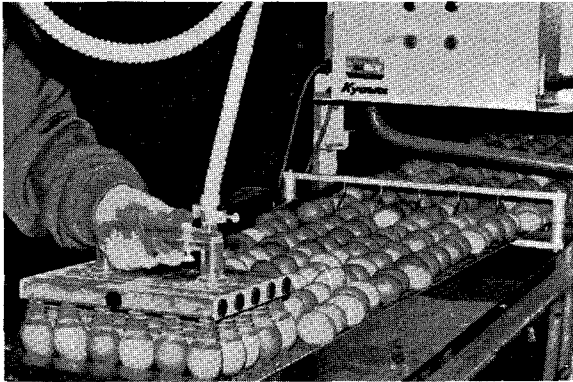
현재는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14농가에서 하루 16~18만개의 계란을 수거, 선별처리하고 있다. 계란수집은 농장의 계란을 4.5톤 트럭을 이용해 집하장으로 직송, 운송된 계란은 선별기를 통해 선별하여 연·과란과 오염된 계란을 검란한 후

등급별로 분리시켜 출하한다.

아직은 포장단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곧 포장출하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다. 집하장에서 처리된 계란은 일반상인들에게 20%, 납품 50%, 난가공업체에 30%를 각각 공급하고 있는데 과란의 경우 엄격한 선별을 통해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기를 이용, 난가공업장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입하되는 물량과 처리되어 출하되는 물량이 늘어감에 따라 점점 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이 증폭되고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동두천 집하장을 운영해 나가는 양소장은 지난 '89년 집하장에 몸을 담으면



• 난좌에서 흡입기를 이용 선별과정에 들어간다.

서 양계인을 위해서라면 젊음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신념으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두천 계란집하장을 채란농가의 대변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다른 집하장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기로는 처리능력의 한계에 이르러 물량처리가 벅차다는 판단 아래 능력이 우수한 기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계란을 집란 처리할 수 있고 세척단계를 추가하여 지금보다 더 청결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상품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기도.

금년 중반기까지 기계교

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50~60만개를 처리시키면서 동두천지역의 60%에 해당되는 계란을 큰 불편없이 유통할 수 있게 되어 '95년까지는 동두천 전체의 유통을 제3집하장에서 도맡아 처리할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새로운 선별기를 도입할 경우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2억원(50%),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 1억2천만원(30%) 나머지 8천만원(20%)을 동두천분회를 중심으로 모을 계획인데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회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더욱 강한 결집력을 지니가고 있는 동두천분회는 양계조합과 보

조를 맞춰 올 100가구의 회원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회원들의 30%가 자체적인 팩시밀리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좀더 보급률을 늘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어엿한 채란양계 단지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동두천집하장 건립을 계기로 하여 중간상인들에 의한 가격조작으로 양계농가의 피해를 방지, 계란수급과 가격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엄격한 선별과정과 중간마진의 감소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각 농장에서 처리하던 개별 선별작업을 집하장에서 일괄적으로 선별함에 따라 인건비의 절감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등 여러면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앞으로 계란집하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양계**